

제 20 회 가치봄영화제

단체관람 안내

[The 20th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1. 일시

- 2019 년 11 월 8 일(금) ~ 11 월 11 일(월)

2. 상영관 안내

- 장소: 피카디리 CGV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5 가길 1 (돈의동, 피카디리플러스 지하 2 층)
- 지하철: 지하철 1, 3, 5호선 종로3가역 2-1번 출구

3. 문의

- TEL: 02-461-2261 Fax. 02-461-2651~2 E-mail : pdfflove@hanmail.net

4. 전 작품 무료 상영

5. 상영일정표 *변동 가능

* 전 작품 무료상영 | 모든 상영작에 한글자막 화면해설 있음.

날짜	시간	제목
11.8 금 CGV3관	19:00	개막식 / 개막작 (22') 코다
11.9 토 CGV1관	11:30	장애인미디어운동1+사전제작지원작 (107') 손과 날개(18분) 불편한 진실-저상버스(33분) 우리도 근로자입니다(11분) 블라인드 파티(26분)
	14:00	PDFF 경선 1 (110') GV 나는 보리
	16:30	PDFF 경선 2 (88') GV 기억의 전쟁
	19:00	장애인미디어운동2 (106') 부엔 까미노
11.10 일 CGV1관	11:30	특별전1 (126') 7번방의 선물
	14:00	PDFF 경선 3 (91') GV 별들은 속삭인다(18분) 뜬구름(22분) 연기를 멈춰라(19분) 미스홍(7분) 배심원들(25분)
	16:30	PDFF 경선 4 (99') GV 병훈의 하루(17분) 애린(16분) 5교시 참관수업(18분) 다운(29분)

		무중력(19분)
	19:00	특별전2 (126') 국제시장
11.11 월 CGV1관	11:30	해외초청+국내초청1(99') 해외초청 스탠드 업 (15분) 세익스피어 인 도쿄(20분) 코다(22분) 국내초청1 모두의 영화(18분) 청이(8분) 나는 네가 될 수 없다(26분)
		13:30
	16:00	폐막식 / 폐막작 : 제20회 장애인영화제 대상

11. 09 토 CGV4관	17:00	장애인미디어운동3(64') 철규
	18:30	국내초청2(114') gv 나의 특별한 형제

6. 제20회 가치봄영화제 섹션 소개

영화를 통해 하나 되는 제20회 가치봄영화제에서는 1편의 개막작을 포함하여 경쟁부문인 'PDFF 경선', '장애인미디어운동', '국내초청' '해외초청' '사전제작지원' '가치봄 특별전' 총 7개 부문 29편의 엄선된 작품들이 가치봄(한글자막 화면해설) 버전으로 상영된다.

■개막작

개막작인 에리카 데이비스 마시 감독의 미국 영화 <코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영화 장면 속에 삽입하여 개막작으로 의미를 더하는 작품이다. 청각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장애인을 뜻하는 코다(CODA)를 타이틀로 한 이 영화의 주인공 알렉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세계 모두에 속하지 못한 채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한 뼘 더 성장한다.



코다 CODA 22분

댄서인 알렉스는 코다(CODA), 즉 청각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장애인이다. 그녀는 댄스 경연 대회를 앞두고 자신만의 안무를 완성하지 못해 고민에 빠진다. 우연히 들른 바에서 청각장애인 드러머를 만난 그녀는 저도 모르게 청각장애인인척 거짓말을 해버린다.

■ PDFF 경선

가치봄영화제의 공식경쟁부문으로 현재 제작되고 있는 장애영화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제20회 가치봄영화제 경쟁부문에는 총 79편이 출품되었으며 그 중 예선을 거쳐 고심 끝에 선정된 작품 12편이 소개된다. 올해는 보다 다양한 장르의 장애 소재 영화들이 선정되었으며 장편 두 편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선정된 영화들의 질적 성장이 돋보인다. 뮤지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코미디 등 형식적으로 장르의 외연을 확장한 영화들과, 소수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부조리를 담아낸 작품들이 포진해 있다.



기억의 전쟁 88분

<기억의 전쟁>은 베트남전 기간에 양민 학살을 자행한 한국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는 감독의 시선은 매우 인간적이며, 희생자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친지가 몰살당하고 살아남은 이들의 회한과 눈물은 베트남 참전 군인회의 학살에 대한 격렬한 부정과 맞닥뜨린다.



나는보리 110분

가족 중 혼자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리는 소리를 잃어버리고 싶은 소망이 있다. 소리를 잃어 가족과 같아지고 싶었던 보리는 자신의 세계를 좁히는 대신 자신이 사랑하는 따뜻한 세계를 더 넓힐 수는 없을까, 함께 공존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점차 넓혀간다.



별들은 속삭인다 18분

도시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골로 전학 온 소녀 연희는 자신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지만, 연희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짝꿍 영준은 연희의 곁을 맴돌고, 연희는 영준과 함께 시골의 삶을 만끽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뜨구름 22분

고3인 지수와 친구들은 서로를 질투한다.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지수는 자신의 고민을 온전히 들어줄 친구를 찾게 된다. 짝지인 우주는 청각장애인이지만 보통의 학생보다 좋은 성적을 유지한다. 지수는 그런 우주에게 의지하게 되고, 둘은 친구가 된다. 그러나 생각보다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지수는 우주를 질투하게 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울해진다.



연기를 멈춰라 19분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우수한 사회적 기업으로 알려진 고무공장의 공장장은 사실 장애인들을 학대하는 악질이다. 어느 날 공장에 알수 없는 연기가 발생하고, 장애인 직원들은 연기를 마시자 웃음을 멈출 수 없게 된다.



미스 홍 7분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는 잃어버린 신발 한 짝으로도 신나는 모험을 즐긴다. 현실과 환상의 희미한 경계 속에서, 할머니는 영웅도 되고, 모험의 주인공도 될 수 있으며, 말을 듣지 않은 노쇠한 몸은 그녀만의 세계 속에서 강철보다 더 단단하다.



배심원들 25분

국민참여재판 제도로 인해 모인 7명의 일반인 배심원들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막노동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범행을 부인하는 용의자, 직접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배심원들은 그의 사회적 위치를 토대로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사람들과, 어떤 직접적 증거도 없이 무작정 범인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장애인 여성으로 의견이 나뉜다.



병훈의 하루 17분

오랜 공황장애와 오염강박증에 시달리고 있는 병훈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밝은 색 옷을 하나 사오라는 의사의 숙제를 완수해내고자, 병훈은 두렵지만 힘겹게 길을 나선다.



애린 16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인 지체장애인 애린은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이지만, 활동가로서의 애린은 무소불위의 전사다. 어린 시절 탐험가를 꿈꿨던 소녀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목소리를 높인다.



5교시 참관수업 18분

청각장애인 엄마를 둔 동민은 참관수업날이 정해졌지만 친구들에게 엄마의 장애를 들키는 게 못내 창피하기만 하다. 엄마가 참관수업에 오지 않도록 동분서주하던 동민은 학교로 찾아온 엄마에게 엄마가 학교에 오는 게 싫다고 말하고, 엄마는 동민의 말에 마음이 아프면서도 동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관수업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



다운 29분

늦게 겨우 아이를 가지게 된 부부는 양수 검사 결과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는다. 이미 임신 6개월에 다다른 탓에 아이를 지우기도 힘들고, 아이를 낳은 후 닥칠 미래가 부부는 두렵기만 하다.



무중력 19분

시각장애인 현희는 아들 민수와 함께 얼마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돌아온 후, 현희는 세상을 향해 모험을 떠난 참새에 관한 동화책을 읽어주며, 부재하는 것의 자취를 더듬는다.

▣ 장애인미디어운동

올해 장애인 참여작들의 면면을 보면, 소재는 한창 다양해졌으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많은 부분에서 일정정도 이해의 폭이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 소통과 이해는 올해 선정된 작품들의 주제를 아우르는 경향이며, 이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부엔 까미노 106분

<부엔 까미노>는 50대의 시각장애인 여성 재한이 대안학교 졸업반인 18세 소녀 다희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장애를 지닌 자신에 대해 당당함과 분노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재한과,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디려는 소녀 다희에게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



불편한 진실-저상버스 33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영화는 저상버스가 실제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영화는 실제로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인들, 버스기사, 일반인들을 다각도로 인터뷰한다.



블라인드 파티 26분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벌이는 국수파티, 활동지원사들의 도움을 받아 벌이는 닭백숙 파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해변에서 벌이는 파티를 통해 주인공 부부는 모든 일상의 복잡다단한 불편함과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을 점차 깨닫는다.



손과 날개 18분

지체장애인 우성은 자원봉사자 혁태를 좋아하고 있다. 홀로 성욕을 해소할 수 없는 우성을 위해 엄마는 우성의 사정을 돕지만, 혁태를 좋아하는 우성의 마음에 엄마의 도움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도 근로자입니다 11분

<우리도 근로자입니다>는 장애인의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에 관해 집중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장애인 고용의 문제, 그리고 장애인에게만 제외되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는 인구의 5%를 이루며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편견의 무게를 반영한다.

철규 64분



지체장애인 철규는 10여년전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독립된 삶을 살고 있다. 매사에 호기심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철규의 소원은 제주도 여행이다.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상업은 철규의 소원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마침내 철규는 활동보조사와 함께 난생처음 큰 배를 타고 제주 여행에 나선다.

▣ 국내초청

올해의 국내초청작은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소통을 통해 희망을 찾는 작품들이 포진해 있으며, 20회를 맞이한 가치봄영화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일종의 비전을 제시하는 영화들이기도 하다.

▣ 해외초청

올해는 작년에 이어 초청부문을 해외초청과 국내초청으로 나누어 상영한다. 벨기에, 일본, 미국 등 유럽과 미주, 아시아 작품이 골고루 초청되어 관객들을 만난다. 장애를 소재로 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영화들은 보다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가 될 것이다.



나의 특별한 형제 114분

비상한 두뇌를 가졌지만 지체장애인이인 세하는 신부님이 운영하는 시설 '책임의 집'에서 수영실력이 뛰어난 지적장애인 동구와 서로 챙기고 보듬으며 형제처럼 살아간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책임의 집'이 문을 닫게 되자 각자 헤어져 다른 시설에 갈 위기에 처한 세하와 동구는 자립을 하기로 결심하지만, 오래 전 동구를 버렸던 어머니가 나타나면서 두 사람의 끈끈한 삶에 위기가 닥친다.



모두의 영화 18분

<모두의 영화>는 장애인이 영화를 본다는 것을 주제로 세 편의 옴니버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세 편 모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의 과정이 누구에게나 향유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공유하고 있다.



청이 8분

청이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화면해설 작가이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는 당뇨병으로 점차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할머니가 못내 안쓰러운 청이. 3년의 시간이 흐른 후, 청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영화 상영에 할머니를 초대한다.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26분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는 연서는 매주 책을 빌리는 미혜와 가까워지고, 미혜의 딸 예린을 만나게 된다. 예린은 어서증후군을 앓고 있어 어려서부터 청각과 전정기관을 잃었음에도 밝게 자라왔지만, 사춘기부터 시작된 시력 상실은 예린을 자신만의 세계에 가둔다. 글쓰기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연서와 예린은 친구가 되지만, 연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예린을 평가하고, 예린은 상처입는다.



스탠드업 Stand up 15분

전신마비 장애인인 배우 파트리시아는 리허설이 끝난 후 데이트 사이트에서 남자를 선택해 빈 극장에서 화끈한 밤을 보내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절친 조에는 난색을 표하며 둘 사이는 어색해진다. 연극연출가인 휘도는 낯선 남자를 돈으로 사려는 파트리시아의 계획을 알게 되자 걱정되는 마음에 극장을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던 남자가 오지 않자 파트리시아를 위해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셰익스피어 인 도쿄 Shakespeare in Tokyo 21분

다운증후군인 벤은 출장 중인 형을 따라 도쿄에 도착한다. 최근에 형제는 어머니를 잃었고, 그 동안 거의 가족을 찾지 않았던 형과 벤은 서로를 잘 모른다. 벤은 연신 통화만 하는 형을 두고 혼자서 도쿄 거리로 하루 동안의 작은 모험을 떠난다.

▣ 사전제작지원

2015년부터 시작된 사전제작지원은 장애관련 소재로 기획, 제작 중인 작품 혹은 장애인이 제작에 참여한 영상물을 대상으로 사전제작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관련 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된 부문이다. 사전제작지원을 통해 장애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좀 더 많이 세상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민혁이 동생 승혁이 19분

돌봄이 필요한 형 민혁을 엄마가 키우고, 자신은 아빠와 지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승혁은 형이 혼자 힘으로 학교에 갈 수 있다면 자신이 엄마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민혁을 혼자 학교에 보내보려고 한다.

▣ 가치봄 특별전

20회 가치봄영화제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역대 가치봄 한국영화 상영작 중 장애인들의 투표를 거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3편을 선정했다. 20회 가치봄영화제 '가치봄 특별전'이 한국영화 가치봄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7번 방의 선물 127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7번방에 들어오는 지적장애를 가진 딸 밖에 모르는 아빠 용구와 이런 아빠를 따라 몰래 7번방에 들어가는 예승의 희생과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국제시장 126분

전쟁으로 인해 피난길에 오른 덕수 가족은 부두에서 덕수가 동생 막순이를 놓친 탓에 아버지와 막순이와 헤어지게 되면서 이산가족이 된다. 국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고모에게 신세를 지면서 성장한 덕수는 가족을 지켜야한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끝까지 가슴에 새기고 산다.



노무현입니다 109분

파란만장한 정치 드라마도, 드라마틱한 역경과 고난, 극복의 과정도 다 담지 못하는 한 인간의 미스터리한 매력을 드러내는 <노무현입니다>는 가장 독특한 정치다큐멘터리로 기억될 만하다.

제20회 가치봄영화제 11.8 ~11.11 (The 20th Persons with Disabilities Film Festival)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34 에이스하이엔드타워 6차 1103호 (사)한국농아인협회 장애인영화제 사무국
TEL: 02-461-2261 Fax: 02-461-2651~2 E-Mail: pdflove@hanmail.net www.pdf.or.kr